

축제 안전 해친다고 우산 압수·폐기 조선대 황당한 조치...시민들 '반발'

가수 콘서트 'GRACIA' 진행 관람객 가방 등 소지품 검사 학교 측 "SNS에 공지했다" 법조계 "명백한 재산권 침해"

조선대학교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우산 등을 일괄 수거한 뒤 폐기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 주최 측은 "공연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전 공지 없는 무단 수거와 폐기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선대 대운동장에서 인기 가수 야외 콘서트 등 'GRACIA' 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행사에는 창모와 싸이 등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몰렸는데, 일부 행사 운영 과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야외 공연장 입장 과정에서 관람객들을 상대로 '반입 금지 물품'을 찾는다며 가

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고, 우산 등을 수거·폐기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날은 날씨도 맑아 비상용 소형 접이식 우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제대로 된 현장 안내나 사전 고지 없이 모두 수거 조치됐다고 한다.

한 시민은 "평소 가방 안에 한 뼘 크기밖에 안되는 비상용 우산을 넣고 다니는데, (진행요원이) 폐기 처분한다며 수거했다"면서 "당시 열떨결에 빼앗긴 뒤 10여분 만에 다시 찾아가 '콘서트 안 볼 테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은 "인파가 너무 많아서인지 우산 수거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현장 안내 등을 듣지 못했다"며 "진행요원 주변 여러 개의 박스 안에 빼앗은 우산이 가득하던데 따로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멸정한 우산을 폐기했다면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 측은 "우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수거한 것"이라며 "일부 SNS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조선대는 정작 수거한 우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경로로 폐기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조선대의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행사 운영 방식

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산 반입을 금지하더라도, 우산 보관소나 번호표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야외공연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산 반입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관람객을 위한 비닐 커버 제공이나 임시 보관소 마련, 폐기 전 일정 보관 기간 확보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형 야외 행사에서 우산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산 반입을 제한하는 일부 행사도 장(긴) 우산에 한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보다 규모가 큰 서울재즈페스티벌의 경우 장우산 반입만 제한하고 비닐 커버를 제공했으며,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에서는 장우산 반입을 제한하는 대신 우산 보관소를 별도 운영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조선대의 우산 수거 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물품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무로 공연이라도 시민의 소유물을 임의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일신방직 개발시 '교통지옥' 광천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필요

광주 복구, 연구용역 보고서...운암사거리 교차로 입체화 의견도

광주의 대표적 교통 체증 지역인 광천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복구는 29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광주시 북구임동 전남·일신방직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광천사거리 일대에 광천동 재개발사업,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및 신세계 복합문화시설 개발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소통대책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천사거리 교차로의 교통량은 오전에 시간당 8348대, 오후에 시간당 7946대이며 1일 12만 5100대 수준이다.

현재 광천사거리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A-F 등급 중 최하 수준인 F등급이다. F등급은 교통량이 구간 용량을 넘어서 차량이 자주 멈추는 등 도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강제류·와해상태'를 가리킨다.

향후 광천사거리 일대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서비스 수준은 F등급 중에서도 가장 혼잡이 심한 FFF등급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FFF등급은 차량이 전방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3주기 이상이 걸리는 심각한 정체 상황을 뜻한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으로 광천사거리 중 죽봉대로(남북축) 또는 무진대로(동서축)에 지하차도를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운암사거리 교차로 입체화 의견도 나왔다. 운암재개발사업, 전남·일신방직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 동서축 북문대로의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운암교차로를 입체 통과하는 양방향 2차로 고가차도를 개설하고 동서축 북문대로 상 운암교차로를 입체 통과하는 양방향 2차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구는 지난 27일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교통 개선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구 관계자는 "향후 개발이 이뤄질수록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체 기자 yiyou@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정상 운행...임단협 '대선 이후로'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대선 이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전국자단체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 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기간을 내달 4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첫 차 운행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조정 시한 연장됨에 따라 파업도 유보하기로 하면서 광주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8.2% 인상(4호 봉 기준 월 34만원),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낮 2시부터 시작된 조정 회의는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졌지만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6월 4일 오후 4시 3차 조정회의를 갖고 협상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자체 공무원 5급 이상 10명 중 3명 '여성'

지난해 35%까지 늘어난 전체 10명 중 5명 '여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5급 이상 가운데 여성 비율도 35%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은 31만 5205명으로, 2023년(31만3296명) 대비 0.6% 늘었다.

지자체 공무원 증가 폭은 2022년 2.3%, 2023년 1.4%에 이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51.3%로, 전년(50.4%)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27.4%, 2023년 30.8%, 2024년 34.7%로 계속 늘고 있다.

17개 시도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만 6948명)였고, 서울시(4만 8792명)와 경북(2만 4579명), 경남(2만 35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전체의 99.4%인 31만 3272명이었고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이다. 6급 비율이 30.1%로 가장 많았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였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년 6개월로, 전년보다 5개월 줄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었다.

/연합뉴스



전국한우협회가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 사료값·도축비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한우협회 "사료값 인상 철회하라"

서울서 규탄 대회

한우 농민들이 농협에 사료값·도축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사료값 인상·도축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이 29일부터 사료 가격을 1kg 당 13원 인상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도축수수료를 1마리당 1만

원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소 가격 폭락, 생산비 급등으로 4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농가는 이미 고사 직전인데 사료값 등을 인상은 것은 농협이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에서 사료값 인상요인으로 지목하는 환율은 점차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5월 들어 1360원대로 떨어지며 4월 고점대비 100원 이상 하락했다"며 "사료의 주요 곡물가격도 하향하고 있어 사료값 인상은 커녕 오히려 선제적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윤순성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농협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6월 대규모 투쟁을 통해 국민 앞에 가짜농협을 규탄하고 새정부 대통령에게 농협회 회포를 고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회 전남도지회는 5월이 농번기인데도 영암·무안 구지역 여파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6월부터 단체 행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사료값 등 인상 철회, 한우법 통과,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연체 기자 yiyou@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납입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